

외국기업의 영업비밀 집행을 위한 새로운 법률 영역: DTSA(영업비밀보호법)

2021년 1월 29일

[Robert Friedman](#) & [Kaitlyn Zacharias](#)

최근 몇몇 재판들에서 지방법원들은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른 책임이 관할권 밖의 피고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해왔습니다. 쉐퍼드멀린의 Tyler Baker 가 이전 블로그 게시물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, DTSA의 치외법권 범위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.

(참조: [Non-U.S. Companies and the DTSA: Parameters of a Developing Reality | Trade Secrets Law Blog](#) (*vPersonalize Inc. v. Magnetize Consultants Ltd.*, 437 F. Supp. 3d 860, 878 (W.D. Wash. 2020); *Micron Tech. Inc. v. United Microelectronics Corp.*, No. 17-cv-06932-MMC, 2019 WL 1959487 (N.D. Ca. May 2, 2019); *Motorola Solutions Inc. v. Hytera Commc'ns Corp.*, 436 F.Supp.3d 1150, 1165 (N.D. Ill. 2020); *ProV In'tl Inc. v. Lucca*, No. 8:19-cv-978-T-23AAS, 2019 WL 5578880 (M.D. Fla. Oct. 29, 2019) 판결 인용).

Tyler Baker 가 언급한 바와 같이, 연방법원들의 외국인이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목적의 행위를 행했을 경우 DTSA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결들은, 외국기업에게 영업 비밀 탈취 관련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
그러나 리스크가 있는 반면 기회도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, 이러한 판결들은 외국기업들에게 그들의 영업기밀이 미국과 어떠한 접점이 있는 한 다른 외국 또는 미국기업에 의해 오용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.

실제로 이는 다른 관할 지역보다 더 많은 보호 조치가 미국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법원은 미국 무역박람회에서의 영업비밀을 구현한 제품을 홍보 및 광고하는 것에서부터 미국 컴퓨터 서버에서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사례에서 미국과의 대한 충분한 접점을 찾아냈습니다. 핵심은 영업비밀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미국과의 접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이 분야에서 법이 완전히 제정되지는 않았지만, 이러한 판결들은 외국기업들이 영업 비밀 소송과 관련하여 미국 법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. 또한 해외 소송 당사자들이 미국에서 더 광범위한 디스커버리(Discovery)가 가능하도록 해주며, 다른 선택지에 따라 더 빠른 해결방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. 물론 각각의 개별 사례와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할 전략적·관할적 문제들이 있으며, 디스커버리(Discovery)는 양방향으로 진행되므로, 외국기업들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미국 법원의 재판 전 디스커버리(Discovery)와 보전 의무에 대비해야 합니다.

이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동 저자인 Robert Friedman 이 출연한 쉐퍼드멀린의 최근 Nota Bene podcast episode 110 " "Mapping U.S. Domestic and Extraterritorial Trade Secret Protection and Enforcement" "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: [Nota Bene Episode 110: Mapping U.S. Domestic and Extraterritorial Trade Secret Protection and Enforcement with Robert Friedman: Sheppard Mullin](#)